

반환점 돈 민선 7기 성과와 과제

임택 동구청장

“사람 중심 도시재생으로 ‘동구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 학동 삼거리 정비사업
○ 우수관 분리 문제
○ 100주년 기념 도로개
○ 도로부터 순
○ 안심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중심에 주민을 최우선으로 놓는 위민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임택 동구청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문화가 꽃피우고 원도심의 풍부한 인문자산을 활용한 사람중심 도시재생 사업이 앞장 성과를 맺고 있다”면서 “후반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광주다움’이 있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임 구청장은 취임 이후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5개 분야 43개 과제 추진에 매진해 지난 5월 말 기준 60.5%의 공약이행율을 기록했다.

또 구민을 대상으로 한 ‘민선 7기 출범 이후 2년 동안 전반적인 구정운영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이라는 설문조사에서 ‘2년간 구정운영을 잘한 것 같다’는 답변이 86.5%나 됐다. 이는 임 구청장의 지난 2년간의 행보를 대변한다.

임 구청장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일환인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미로센터, 총장22를 성공리에 개관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3대 거점시설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내남·용산·선교지구 등 3곳의 도시개발과 계림7·8구역 등 10여 곳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비롯 각종 원도심 활력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해 인구

43개 과제 추진 공약 60% 이행

거점시설 개관 등 원도심 활성화

신산업 중심 전략산업 육성 박차

10만 명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점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민선 7기 2년 동안 생활SOC 확충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해 역대 최대인 1165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 것도 눈의 띄는 성과다.

임 구청장은 마련재원으로 구립공공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일자리모작 평생학습복합센터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도로개설,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해묵은 주민숙원 사업들을 풀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구 문화벨트 실현과 더불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임 구청장의 구상에는 오랫동안 동구에 거주하며 구의원, 시의원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펼쳤던 경험이 녹아 있다는 분석이다.

임 구청장 취임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을 광주 대표 문화관광단지 조성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구는 ACC, 광주문화재단 등 9개 유관기관과 손잡고 사업비 63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빛의 정원, 관광형 문화광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 오지호가 일대 지역문화예술 핵심지역 조성, 정음성 생가 역사공원 조성, 인권-민주화생지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역사문화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싸목싸목 문화마실, 야간관광상품 개발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계획도 순항 중이다.

임 구청장은 마을 변화, 주민의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을소통 공간 운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동구는 지난 2등을 시작으로 학운·산수1·학동에 연이어 마을사랑채를 조성했으며, 민선 7기 임기 내에 13개동 전체에 마을 사랑채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추진으로 동구는 지자체 열린혁신 우수기관, 지방재정개혁 우수기관, 대한민국 건강도시대상,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SA)’ 획득, 도시재생뉴딜 최우수 지자체장상 등 모두 53건의 수상실적도 냈다.

임 구청장은 민선 7기의 후반기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신산업 중심의 미래전략사업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사람중심 인문공동체 조성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인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먼저 500억원이 투입되는 동명동-인쇄의거리 등 2곳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문화전당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노린다. 주민, 상인, 전문가들이 협업체를 꾸려 만든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도로정비, 집수리, 인쇄역사박물관 건립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또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35억원의 사업비로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실증센터 건립 등 첨단융복합 산업 육성을 꾀할 계획이다.

임 구청장은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그룹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채움 프로젝트, 마을일터 청년인턴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을 돕고 인문순례길 조성, 인문원형 발굴보존 등 다양한 인문도시 조성사업으로 주민 인문역량 증진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하다”면서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동구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후반기 포부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 코로나 피해 지역 광융합기업 수출 증진 지원

해외마케팅센터 온라인 상담
물류비·보험료 등 지원책도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달라진 해외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광융합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글로벌 광융합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해외공동안·무역촉진단 파견과 수출상담회 등 전통적 대면 중심 해외수출 판로개척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독일 등 해외마케팅센터 24곳을 활용해 해외바이어·지역

광융합기업을 매칭하는 온라인 수출상담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순부터 온라인 수출상담 참여 기업을 모집해 8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광융합기업에 해외물류비, 수출보험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총 1억6000만원 규모의 기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소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광융합제품 제조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특허 또는 해외수출 실적 보유,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등이다. 지원규모는 ▲해외물류비는 10곳, 기업당 330만원 이내 ▲수출보험료는

10곳, 기업당 230만원 이내 ▲시제품제작 지원은 광융합관련 협동조합 2곳에 조합당 1250만원 이내다.

오는 13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 중이며,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산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기업 우수제품을 해외바이어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 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등에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날 기업 29곳을 선정했으며, 조간간 홈페이지 제작 등 전문용역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드론 이용 지하철시설 점검 광주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최근 드론을 이용해 지하철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공사는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장비를 투입해 그동안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었던 하천 위 철도교량 아랫부분과 지상역 높은 부분, 용벽 등 사각지대 점검에 나서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5년 연속 수질분야 국제인증 획득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5년 연속 수질분야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국제 공인 숙련도 운영 인증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협회(ERA) 주관으로 실시된 환경

오염물질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만족’ 등급을 받아 수질분야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최우수연구기관으로 평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국제숙련도

평가 수질분야에서 수은 등 중금속 8항목, 휘발성유기화합물 2항목, BOD 등 일반항목 10항목 등 총 20항목을, 국내숙련도 평가 폐기물분야에서는 중금속 5항목 등 총 7항목 모두 ‘만족’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폐기물분야 국내 숙련도에서도 전 항목 ‘만족’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늘어나는 1인 가구 지원 위한 실태조사

광주시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서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의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독

거노인 등 각 계층별로 실시하는 심층 인터뷰 조사를 병행해 1인 가구 실태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올해 말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홈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